

신품종 '올레찰'과 중국산 기장 생육 특성 비교

□ 올레찰이란 ?

- '올레찰'은 흑자색 기장으로 2016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하여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제주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선발하였습니다.
- '올레찰'은 향미가 풍부하고 폴리페놀, 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성분함량이 중국산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품종입니다.

□ 올레찰 수량은 ?

- 제주지역 농가에서 2년간 농가실증시험을 수행한 결과 '올레찰'이 중국산에 비해 제주시(고산), 서귀포시(성산) 지역 모두 81%, 44% 증수하였습니다.
- 제주시(고산)에 파종한 '올레찰'이 192kg/10a로 가장 높은 수량을 보였습니다. '올레찰'이 중국산에 비해 분얼이 적고 주당 이삭수는 적었으나 이삭중과 천립중이 무거워 종실수량이 많았습니다.



'올레찰' 기장 비교



'올레찰' 기장 현장 평가

□ 올레찰 특성은 ?

- '올레찰'은 제주지역 작부체계에 적합한 단기성 찰기장으로 직립 초형, 하수형 이삭이며 생육일수는 85일입니다.
- 출수와 성숙에 소요되는 일수는 '올레찰'이 중국산에 비해 4~6일 정도 늦었습니다.
- 종실색은 짙은 갈색이고 반점이 없으며, 배꼽색은 어두우 편이며, 배유특성은 찰성입니다.

□ 재배시 주의사항은 ?

- 파종이 늦어질시 불시출수 발생 및 개화기 강우 등으로 인한 불임 유발 우려 있으므로 적기(3~4월) 파종해야 합니다.
- 질소비료 과다시용은 도복이 우려되므로 적정시비 해야 합니다.
- 세균줄무늬병과 도열병이 발생하기도 하나 기상조건이 호전되면 회복되는 경향이 고, 조명나방 피해는 약하게 발생합니다.
- 제초제 전용약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제초제 처리는 피해야 합니다.